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3년도 표어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 : 40, 레 19 : 18)

행동지침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 발행인: 박노철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어린이주일메시지

아이야!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나?

가끔 길거리에서 엄마의 손을 잡고 가는 어린 아이들 혹은 학교를 파하고 돌아오는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한 동안 설명하기 힘든 설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뛰어가서 “아이야,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니?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니? 네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은혜와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아니?”라고 말해 주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곤 합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을 맞아 황홀한 색상으로 피어나는 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행복해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노래한 것처럼 어린이들은 이런 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또 아름답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아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즐겨하셨고, 이런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셨던 이유를 잘 알 것 같습니다.

서울교회는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서울교회는 우리 1세대들이 받았던 사랑과 축복보다 우리 2세대들이 더 큰 사랑과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히 심기우기까지 결코 쉬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교회의 미래가, 한국교회 전체의 미래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로 이런 어린이들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인도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서울교회를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다음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 박노철



제12대 장로후보 선출을 위한 제직회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우리교회 제12대 장로후보 선출을 위한 제직회가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개최된다.

서울교회 제직(담임목사, 부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무임장로, 협동집사, 협동권사, 서리집사)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의 뜻에 합당한 후보가 선출되도록 협력하기 바란다. 또한 5월 19일(주) 서울교회 제12대 장로, 제13대 안수집사, 제12대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개최된다.

제직들은 오늘 투표용지 교환권 수령토록

-3부 예배 후 찬양예배 전까지 2층 로비에서-

오늘 찬양예배 직후 개최되는 제12대 장로후보 선출을 위한 제직회에 참석할 제직들은 3부 예배 후 찬양예배 전까지 2층 로비에서 제직자격 확인과 함께 투표용지 교환권을 꼭 수령하기 바란다. (대리수령은 불가함)

이에 앞서 모든 제직들은 1,2,3부 각 예배 후 배포

되는 장로후보 사진 명단을 수령하여 제직회 참석 전까지 적합한 분을 미리 기도 중에 준비하여 오기 바란다.

기표는 각 제직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10명만 하게 되고 득표순에 따라 20명을 공동의회에 추천하게 된다.

직분자 필수반 수료자 명단

교육: 매주일 2부 예배 후 - 602호

서울교회는 성도들의 교회에 대한 이해와 원활한 봉사를 위하여 2013년부터 새가족부(부장 하인선 장로) 내에 "직분자 필수반"을 개설하고 박노철목사가 지난 1월 주일 저녁찬양예배 시 전 교인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시작으로 2월부터는 새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직분자들이 필히 가져야 할 성경적 가치관과 자세 등을 비롯하여 서울교회의 조직 및 부서의 기능 등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봉사부서를 이해하고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 교육은 4주 과정으로 매 주일 2부 예배 후 602호에서 유문건 목사(새가족부 담당)의 은혜로운 강의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대상은 새가족 뿐만 아니라 기존 성도도 수강할 수 있으니 아직 봉사 부서를 선택하지 못한 성도들은 적극 참여하기 바

란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수료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1교구: 송대원 전정희 조원민 박용훈 위대영 전효신
 - 2교구: 김기태 조연숙
 - 3교구: 고경원
 - 4교구: 문한식 송경민 조애자
 - 6교구: 안오곤 차동길 송명심
 - 8교구: 최제호
 - 11교구: 황순옥
 - 12교구: 박백만 박봉진
 - 13교구: 김종무 김영혜 최미진 이은진 조혜영
 - 14교구: 윤정민 백선희
 - 15교구: 우선경
 - 16교구: 현미순
- (총 28명)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86]

(문 85) 하나님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모르시고 후회할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답) 삼상15:11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돌아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인 사울이 그의 후기에 왕의 직분을 남용하여 자기의 무에 충실치 못할 것을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로부터 구원하게 하는 적임자로 보신 것입니다. 사울은 암몬 아말렉 블레셋을 이기고 자기 백성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국가적공지를 갖게 하는데 적합한 인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불순종과 반역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사랑하시고 사울을 완전히 버리실 것을 예지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야곱의 임종시 예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족속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을 위한 영원한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 하였습니 다.(창49:8-10)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왕권이 주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사울의 미래는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주신 명령을 불순종한 것은 큰 유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 대신 자기 뜻으로 대처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후회라는 동사 niham은 타인을 포함한 상황에 대한 깊은 감정과 관심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한 기대가 속임수로 무너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길을 벗어남으로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 깊은 고통과 아픔을 말한 것입니다. 오히려 삼상15:29에서는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결코 변개하지 아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1절에서 후회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주 계속)

서울강남노회 제52회 정기노회

우리교회가 속한 서울강남노회 제52회 정기노회가 5월 7일(화) 오전 9시 한교회(이광수 목사시무)에서 열린다. 우리교회는 목사회원으로 박노철, 한상은, 서명철, 정수길, 장석남, 황광, 유문건, 김안성, 임규현 목사가, 장로총대로 오정수, 노문환, 하영수, 서문석, 신용식, 김영준, 이영기, 노송성, 홍성주, 박정선 장로가 참석한다.

43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종강

4학기 수료자 11명 배출

'교회성장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을 주제로 지난 3월4일(월)부터 10주간 계속되었던 제43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내일 10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종강한다.

이번 목회자신학세미나는 1교시는 허주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의 사도행전 강해를, 2교시는 10개 교회의 교회성장 사례를 강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학기에는 4학기 수료자 11명을 배출하였다.

<4학기 수료자 명단>

- 김동순 전도사(중현교회) 김영순 목사(은혜교회) 박정숙 목사(만나교회) 신덕만 목사(부남명성교회) 심재구 목사(의왕중앙교회) 유지수 목사(참좋은교회) 이종구 목사(아현교회) 정재득 목사(사랑순복음교회) 문형규 목사(동부교회) 이경옥 목사(사랑의축복교회) 배기복 목사(순복음교회)

살롬권사회 점심 대접

제1권사회(회장 : 허 숙 권사)는 오는 5월 8일(수) 어버이날을 맞아 살롬권사회원과 70세 이상 되는 교회 어르신들께 점심 대접을 한다. 살롬권사회원 및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수요일부예배 후 만나홀로 가시면 된다. 어르신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



어린이주일

손녀 윤에게

노문환 장로(12교구)

윤아, 할아버지는 너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절로 나온단다. 어느새 많이 커서 하는 행동 하나 하나가 할아버지를 기쁘게도 하고 때로는 깜짝 놀라게도 하면서 얼마나 큰 기쁨을 안겨주는지 이런 행복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단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할아버지는 윤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몸이 자라고 더 지혜로워지며 사랑스러운 어린이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도한다.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 안에서 자라며 교회에 나와 예배 잘 드리고 목사님,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로 자라기를 기도한다.

윤아, 점점 더 자라가면 때로는 마음

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생기고 속상하는 일들도 생기고 한단다. 그럴 때 우리 윤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거야. 하나님은 윤이의 마음도 아시고, 윤이에게 필요한 것도 아시고, 윤이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채워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다음에 말하는 거란다. 윤아, 할아버지가 윤이에게 바라는 것은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잘 알고 믿으며 그 분을 사랑하면서 커가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친구도 선생님도 더 사랑하게 되고 엄마 아빠도 동생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더 사랑하게 되는 거란다.

윤아, 많이 많이 사랑한다.



생명이 힘차게 움쑅음치는 푸르른 오월, 싱그럽고 아름다운 계절이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되어 온 땅에 가득 하구나. 보배롭고 존귀한 너희들을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한 가족으로 만나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온 가족이 한데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 어린 너희들이 성경책, 찬송가를 스스로 찾아와 가져오는 모습이 마치 천사와도 같고 우리 원빈이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를 크게 부를 때 그리고 헤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찬양할 때, 풀썩에 핀 보라색 제비꽃을 유독 좋아하는 헤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꽃”이라며 예쁘게 미소 지을 때, 이런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너희들이 대견스럽기만 하단다.

만왕의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해 주시고 하나



어린이주일

원빈 헤리 시온 은울아!

차명숙 권사(5교구)

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놀랍고 엄청난 사실 앞에 우리의 일생을 송두리째 모두 드린다해도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족이 되도록 하자.

내 사랑하는 원빈, 헤리, 시온, 은울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뜻을 따라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자라서 교회의 기둥으로 든든히 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계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아 귀한 일꾼으로 성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한다.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 세아가 태어난지 엿그제 같은데 벌써 초등학교생이 되었다니... 한때 건강하게만 자라 다오라는 대화명을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도 잠을 안자서 제발 잠 좀 자다오라고 글귀가 바뀌기도 했던 적도 있었고 누구나 한번쯤 겪었을 일이겠지만 경험 없는 부모로 밤에 고열이 생기거나 갑자기 자다가 팔이 빠지거나 과일을 통째로 삼키는 바람에 목에 걸리는 등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응급실로 댈뎀 댔곤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주님께서 항상 지켜 주셨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올해 세아가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내심 걱정했는데 친구들이랑 즐겁게 잘 사귀고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품스쿨을 시작하면서 전날부터 준비하며 아침에 일어나는



어린이주일

세아야 사랑한다

임승한 집사(11교구)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보기에도 사랑스러운데 주님께서서는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를 생각해 본다.

오히려 아침에 이것저것 챙긴다는 핑계로 주일 예배에 가끔 늦었던 나의 모습이 조금 부끄러운 생각까지 들게 되었다. 물론 아직도 어린 나이로 가끔 떼 쓰고 동생이랑 다투기도 하지만 의젓하게 동생도 챙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모습을 주님께서서는 사랑하시어 귀 기울이시고 품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세아야 아빠가 앞으로 세아야 하는 말에 좀 더 귀 기울이도록 노력할게. 말씀 속에서 세아를 통한 주님의 계획하심과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할게. 앞으로 지각하지 않도록 좀 더 부지런히 준비하자 화이팅! 사랑한다.

어린이주일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이주현 집사(12교구)

사랑하는 예나, 예준아. 많은 봄꽃들이 만개한 요즘. 봄을 맞이하는 예나의 마음은 한창 들떠있어 보이는구나.

호기심 많은 예나가 ‘엄마! 저 노란색 꽃이 피어있는 나무 이름은 뭐야? 저 핑크색 꽃이 피어있는 나무는 뭐라고 불러야해?’ 라고 물을때면 엄마는 나무들을 올려다보며 새삼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구절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루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렘 17

:7~8).

우리 예나와 예준이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크고 작은 일을 겪게되고, 화창한 봄날씨 처럼 좋은 일도 만나고 때서운 바람이 부는 날처럼 힘겨운 일을 만날 때도 있겠지만 그 뿌리를 말씀에 두고 살아간다면 모든 일 앞에 담대함으로 맞서고 능히 이겨내리라 엄마는 믿는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예나와 예준이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말하는 복있는 사람이 아닌 성령이 말하는 복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나 예준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펼쳐주실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이 늘 기대된다. 또한 너희들을 통해 이루실 청청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기다려진다. 그래서 매순간 기쁘고 감사하단다. 우리 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노력하자. 온맘으로



나의 하나님

내 아이들의 성경 통독

소윤경 집사 (12교구)



"복 있는 사람은 . . .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시 1:2)

아이들과 성경을 읽기 시작한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중윤 원로목사님의 설교 중 어린아이들도 일년에 한번씩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한다는 말씀에 시작된 성경읽기는 우리 가족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학년, 2학년 어린아이여서 짧은 시편을 한 두 장 읽는 것으로 시작된 성경통독. 어려서 허짧은 소리로 읽기 시작해 이제 고학년이 된 지금까지 한편 한편 읽는 동안 책거리라고 선물을 사주고, 외식을 하기도 하며 이젠 통독을 마치고 스마트폰을 기대하는 아이들로 훌쩍 커버렸습니다.

"내가 읽는 부분만 늘 길어요~" 라는 불평부터 "오늘만 쉬어요..." 라는 일은 예

사입니다. 아직도 성경을 읽다가 돌이 싸우기도 합니다. "성경을 왜 읽어?" 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아이들에게 "성경이 무엇이나?"라고 다시 물으니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다른 때와 달리 성경을 읽을 때와 예배시간에 장난치고 싸우면 바로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뻐하실까? 성경을 많이 읽지만 한다고 기뻐하실까? 왜 읽는데?" 라는 질문은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의무감으로 읽기를 강요하기보다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면서 왜 읽어야 하는지를 함께 가르쳐야하기 때 문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현승이 현주의 성경읽기표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 6:5~7).

자녀들에게 말씀에 기초를 두고 세상과 구별됨을 분명히 가르칠 때 부와 건강, 명예와 성공을 가르치는 세상 친구들과는 달리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로 자라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목회자신학세미나를 마치며

목회에 활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형규 목사 (동부교회)

신학교를 졸업한 후 20년이 넘도록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박사코스를 하지 않는 한 마땅히 공부할 만한 곳이 없어 세월이 흐르다 보면 학문적으로 점점 후퇴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차에 동료 목사님을 통해 목회자 신학세미나를 알게 된 후 지금까지 5년 가까이 거의 매주 월요일은 서울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하였던 것을 한 번 살펴 보았습니다. 이중윤목사님의 호세아서 강해를 시작으로 허주 교수, 김정우 교수를 통해 베드로 서신과 사도행전과 창세기를 공부하였는데 모두 주옥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이번학기 허주 교수의 사도행전 강해는 내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내도 같이 듣고서 이런 말씀은 난생 처음 듣는다니 감탄을 연발합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의미가 깊고 맛이 있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허주 교수님께서 이 지면을 통해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부 특강 시간에는 성공회, 예장통합, 기장, 성결교회, 고신교회, 순복음교회, 감리교, 루터교, 천주교 등등 우리나라 각 교단의 최고 권위자로부터 교단의 신학과 정체성을 들을 수 있었으며 불교, 원불교, 통일교, 안식교, 이슬람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등등의 이단과 사이비종교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국 최고의 전도단체 대표자들로부터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혜와 열정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가 내게는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 들 입니다. 이곳 신학세미나가 목회의 시야를 넓혀주며 내 목회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심혈을 다해 준비하는 서울교회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 접수하시는 분, 안내하시는 분등 모두 기쁨과 감사로 봉사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지만 합니다.

이 세미나가 20년이 넘는 동안 이처럼 은혜가운데 진행되어 온데는 섬기시는 분들의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43학기 수료를 하면서 서울 교회에 크게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은총을 빕니다.

동정

■ 이중윤 원로목사는 5월8일(수)부터 10일(금)까지 금호교회 신앙 사경회를 인도한다.

■ 특남 : 6교구 권재현 집사, 음혜경 집사 가정. 2013년 4월 28일
 ■ 공연 : 3교구 이승현 성도(유니버설발레단 수석 발레리노) <심청> 5월 9일(금)~12일(주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 주간식당봉사 : 제2권사회(5.5) 빌립선교회(5.12)

■ 금주의 식사 : 짜장면 (교회제공)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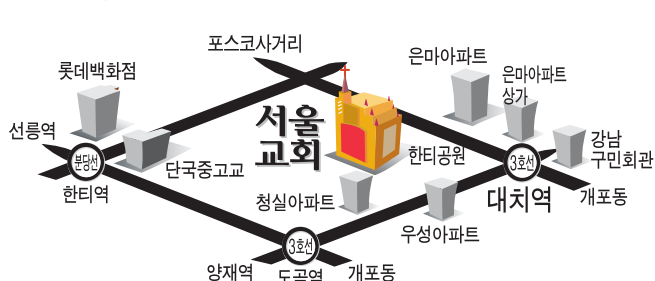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교회 다음 세대들이 사랑과 복음의 말씀 가운데 잘 자라서 교회와 나라의 큰 나무들이 될 수 있도록
2. 2013년 장로, 권사, 그리고 안수집사를 세우는 일이 모든 성도들이 많은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는 계기가 되도록
3. 목회자신학 세미나에 오셔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은 교역자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앙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